

# 같이 사는 공동체 의식

---

어진 사람이 사는 곳이며, 인천항을 통해 수없이 드나드는 선박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배움의 보금자리를 잡은 본교가 올해로 설립한 지 4년을 맞아 교지 제2호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량한 벌판 위에 교사를 신축하여 개교하던 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기존 사학의 성격을 넘어선 신선한 충격으로 불어왔고, 해가 거듭될수록 이웃 건물들이 터를 다듬으면서 오늘과 같은 아름답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까지는 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학교의 역사는 짧지만 인항은, 그동안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꾸준한 발전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명실공히 이 나라 동량들을 길러내는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항 학원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로 개교를 하였습니다. 신설 학교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월례 직원조회를 열어 평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또한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사학 병폐 중 하나였던 교직원 채용시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선두적인 입장에서 평교사의 의견을 반영시켜 신규 교사를 임용하는 공개전형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한 서류심사와 더불어 공개수업을 통해 엄선된 신입 교사들은 남다른 자부와 긍지를 갖고 화목한 동료의식과 철저한 교직의식과 열성으로



## 재단이사장 정한주

---

다른 학교에 모범이 되어 본인은 여러 선생님들의 진지한 노력에 감사의 정을 보내고자 합니다.

본인은 여기서 인항의 학생 여러분에게 당부의 하나로서 공동체 의식을 말하고자 합니다. 인간들은 언제인가부터 같이 살 때 수반되는 어려움이나 불편함만 생각하고, 혼자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이 생겨도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심리에 사로잡혀 공동체 안에서 조차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바로 같이 사는 지혜를 인항의 울타리에서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동안 평화롭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은 바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지, 곧 공동체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릇된 시각에서 온 인류 역사상의 온갖 갈등과 비리와 모순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나의 바램이 있으면 남의 바램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의 입장에서 남을 헤아릴 줄 아는 도량으로 우선 공동체 의식은 학교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仁港' 제2호를 발간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주신 여러 선생님과 인항인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